

# 온실가스 1천여t 줄인 남구 '감축인지 예산제' 눈길

작년 5월 시범운영 후 1년만 성과  
광주 자치구 첫 조례 제정·도입  
86개 사업 중 41개 성과 정량화  
"기후 위기 필수 과제...지속 관리"



광주 남구는 지역 자치구 중 처음으로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 1년 만에 온실가스 1천여t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최근 남구 관계자들이 지난해 온실가스 예산제 결산서를 작성하고 성과 등을 분석하는 모습. <광주남구 제공>

광주 남구가 지역 자치구 중 처음으로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한 지 1년 만에 온실가스 1천여t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각 부서별로 탄소 배출량과 감축 목표를 수치화해 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남구는 2024년 11월 11일 광주 자치구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 5월부터 시범 운영에 나섰다.

세부적으로 남구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이 있는 86개 사업 중 수치로 정량화할 수 있는 41개에 대해 추적·관찰을 해왔고 최근 결산 결과를 자체 누리집에 공개했다.

결산 내용에 의하면 지난 1년여간 감축한 온실가스는 1천143t으로 집계됐다. 이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표준 탄소흡수량 지표를 기준으로 30년생 소나무 17만3천736그루가 1년간 흡수한 탄소량에 해당한다.

감축량이 가장 많았던 건 탄소중립과였다. 해당 과는 관내 주택과 상업 건물, 공공건물에 태양광과 태양열 시설을 보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통해 연간 온실가스 830t을 감축했다. 또 가정에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해 탄소 배출량 88t가량을 줄였다.

이 외에도 환경관리과와 공원녹지과는 각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과 생활권 주변 유희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태숲 조성 사업

을 추진해 온실가스 22t과 7t을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미숙 남구 탄소중립과장은 "기후 위기 대응 선책이 아닌 필수 과제이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는 행정기관이 먼저 탄소 배출을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는 실천적 선언"이라며 "향후 매년 결산서를 정례화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 '직영 전환' 광산CC 이용자 만족도 91%

區, 최근 188명 대상 설문조사  
시설 정비·구민 우선 예약 '호응'



광주 광산구가 직접 운영에 나선 광산CC(사 진)가 시설과 운영, 서비스 전반에서 대대적인 혁신을 이루며 이용 시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받았다.

10일 광산구에 따르면 직영 전환 이후 최근 실시한 첫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만족도 91%를 달성했다.

설문·현장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이용자 188명이 참여했고 편의성과 친절도 등 대부분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는 쾌적해진 라운딩 환경이 꼽혔다. 앞서 광산구는 개장 15년 만에 대대적인 페·수목 정비와 계절별 꽃단지 조성을 통해 코스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수·자동 검용 전동카드 도입으로 경기 효율을 높였으며, 클럽하우스 정비 등 시설 현대화에 주력한 결과 코스 관리 상태 만족도는 9

4%에 달하는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매일 13·19·26일을 '광산구민 골프하기 좋은 날'로 지정해 구민에게 우선 예약권을 부여하고, 휴서기 양·우산 대여와 얼음 생수 상시 비치 등 세심한 안전 대응으로 이용객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광산구 관계자는 "91%의 높은 만족도는 직영 전환의 효과를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광산CC를 공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전국 최고의 상생 골프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옥근 기자

## 북구, 광융합무역촉진단 파견...동남아 시장 공략

관내 기업 11개사 등 참여  
자카르타·호치민 판로 개척

광주 북구가 지역 기업의 동남아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광융합무역촉진단을 파견했다.

10일 북구에 따르면 '2026 광융합무역촉진단'이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해 본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촉진단은 광융합 분야 중심의 북구 소재

기업 11개사와 문인 북구청장, 북구청 및 광융합산업진흥회 관계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참여 기업은 지난 3월 심사를 거쳐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발됐다.

촉진단은 오는 16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베트남 호치민에서 총 2회의 수출상담회를 열고 바이어와의 미팅, 현지 기업 및 기관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다수의 수출 계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파견 지역은 사전 기업 수요조사와 현지 시장

성 분석을 반영해 결정됐다.

북구는 참여 기업이 의미 있는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비 9천만원을 들여 왕복 항공료 70%와 통역 및 차량을 제공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기업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이번 광융합무역촉진단이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는 체감도 높은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찬용 기자

## 서구,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선제 점검

광주 서구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침수 취약지역과 방재시설 등 재난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10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8일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회의'를 열고 호우·태

풍 등 여름철 풍수해 대응체계를 살폈다.

이번 회의는 앞서 기상청이 올해 5-7월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 등에 대비하는 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유충교 하부도로 차단시설물 설치, 동남아파트 주변 침수방지 압송관로 설치, 서창천 산책로 진입로 스마트 자동차단장치 설치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도 점검됐다.

또 비상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 21명을 파악하고 주민대피지원단 48명을 구성해 기상특보 단계별 대피 지원 방안과 비상근무 체계도 확인했다. /이연상 기자



## 동구,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

어르신 300여명 참석

광주 동구는 "제54회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난 7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 3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대 간 존중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선 오랜 기간 가정을 책임지고 지역 사회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27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사진>

식전 행사로는 동구피망어린이집 아동들이 난타 공연을 선보였고, 참석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시간이 이어졌다.

동구 관계자는 "동구는 광주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인 만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 백년동아리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